

종합·해설

대선·총선 영향력 막강... 칼자루 누가 질까

■ 서울시장 보선 D-2... 정국전망 시나리오

여, 정국 주도권·레이덕 차단효과 기대

야, 승리엔 대통합 등 정계개편 신호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과 대선구도를 통째로 뒤 흔들면서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선후보가 초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후보의 '정치 실현'이 성공할 경우 기존의 정당정치 제도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권=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권은 나름대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당장, 여권은 '안풍(安風·안철수 불풍)'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 등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을 수습하고 전열을 갖춰 내년 총선과 대선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레이덕(권력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승

리할 경우, 여권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총선과 대선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변화와 혁신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분열 국면이 도래하고 청와대의 레이덕 현상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야권=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경우, 범야권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대통합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박 후보의 승리는 야권 대통합의 본격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군소 야당이 대통합보다는 선거 연대를 선호하고 있고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박원순 후보가 패배할 경우, 시민사회 세력의 목소리는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지도부 책임론 속에 대안안에 휩싸이면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면 안풍에 밀려 주도권을 상실했던 민주당이 다시 야권의 중심에 서는 '반사 이익'도 예상된다.

◇대권구도=내년 대선 구도도 이번 선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우선,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다면 박 전 대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안풍에 흔들렸던 '박근혜 대세론'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안철수, 문재인 등 정당 밖 야권 주자들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도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박원순 후보가 승리한다면 박 전 대표의 독주 양상을 보였던 대선 구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도전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안철수 원장이 '박근혜 대항마'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이사장 등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서전 낸 이정현 의원

“호남위해 할 일 세 부러트당게”

27일 출판기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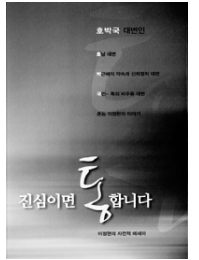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안론 추구역할을 해온 이정현 의원이 23일 당내 최초 호남 지역구 의원을 향한 바람과 '박근혜 정치'에 대한 입장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진심이면 통합이다-호남 국민대변인'을 펴냈다. '호남대변'은 '호남대변', '박근혜의 약속과 신뢰정치대변', '국민·비주류대변'의 머릿글자를 따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출간한 에세이 집을 통해 자신의 유년기에서부터 정계 입문, 의정활동, 호남 예찬론 등을 담담히 적었으며,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 전 대표와의 인연과 박 전 대표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의 인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직후인 지난 2004년 총선때였다. 광주에 출마해 고군분투 중인 이 의원에 박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라고 격려한 게 박 전 대표와의 첫 인연이었다고 소개했다.

선거 직후 박 전 대표가 마련한 점심 자리에서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 주십시오"라며 수십 분 간 일변을 토해냈다. 박 전 대표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세요"라며 당 수석 부대변인으로 발탁한 것이 본격적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 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패배 직후 이명박 후보 측의 선대



위 고위직 제의와 김문수 경기지사 측의 경기도 정부부지사 제의를 모두 고사했다.

박 전 대표가 '폭탄주'를 제조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박 전 대표가 술을 잘 못마시는 가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직접 만들면서 특별한 폭탄주 제조법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다는 것. 박 전 대표는 폭탄주를 둘러싸고 "제가 이공계 출신인데 폭탄주도 이공계 식으로 제조한다"라며 좌증을 웃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인간 이정현'도 흥미롭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자신의 마을과 학교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18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비례대표 당선에 한해 어려운 것으로 보이자 비 오는 거리를 실성할 사람처럼 걸었다는 일화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 턱도 없다. 국회의원 좀 더 해야겠다. 나 버려라. 솔직히 아까울 것이다. 인자 알만 하고, 활만 하고, 할 일이 세 부러트당게 사방"이라고 자지를 호소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주 빛고을시민체육관에서 박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시장 범야권 박원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사랑나눔걷기대 23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회에서 참가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갯속 판세 마지막 주말 총력전

朴-羅, 호남 표심 잡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3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훈합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마지막 주말·휴일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9일 마지막 여론조사에 실시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등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자 양측은 지지층의 결속력 확보와 부동층의 향배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 두 후보 측은 사활을 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두 후보는 휴일인 23일 3000

여명의 유권자가 한곳에 몰린 목동종합운동장의 경계 고층근민체육대회에 참석, '호남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나 후보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천호동 사거리와 중곡동 신성시장, 백화점 등을 돌며 저인망식 골목 유세를 했다. 나 후보 측은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만큼 대규모 이벤트를 만들기보다는 유권자들과 최대한 접촉을 늘리며 시정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을 심판하고, 기성 정치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화의 바람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박 후보는 마포구 사랑나눔걷기 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양천구와 구로구를 돌며 선거 유세를 벌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집중 공략했다.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나 후보는 '부친 학교재단 감사배제 청탁'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1억원 회원권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3곳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이미 허위 화력기재 의혹을 제기한 나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근거 없는 흑색선전 적발 시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park@kwangju.co.kr

이희호 “박원순 위해 민주당 더 노력해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원순 전 원내대표가 23일 전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가 지방 방문 일정으로 지난 18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를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여사가 '박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당선을 기원하는 말씀도 했다"고 덧붙였다.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22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과 나는 일심동체"라며 안풍(안철수 바람)을 내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우리 사회가 변화하려면 박원순 같은 사람이 시장에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박 후보 지원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1%를 위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10·26 재보선은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반격의 날"이라고 밝혔다. tuim@kwangju.co.kr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위원장 임택씨 선출

신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위원장에 임택(48)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지난 22일 영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2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를 열어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5%를 득표한 임택 후보가 34%를 얻은 김병수 후보를 누르고 2기 시장위원장에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무안 출신인 임택 신임 광주시장 위원장은 재선 동구의원, 동구의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동구청장 선거에 두 차례 출마했다. 임 위원장은 당선자 인사말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야권통합 논의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며, 광주 지역에서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이날 여성위원장에 황순영씨와 청년위원장에 이상재씨를 각각 선출했다. ck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동명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서구 삼기건물 5800㎡,매매가 60억(원) (용지34억) 정영운영시 연간순수익8억(현수유지와 공동투자기)
- 광진구 침탄지구 상가대지657㎡,건물790㎡매매가 20억(보증금4억, 월1250만원, 용지6억)

【유명브랜드 취급 전문상가매매】

- 광주 최고 핵심상권 상가매매 29억(보증금3억, 월1700 용지 10억)유명브랜드 전문매장 취급

【담양 주택매매】

- 수북면 대지2510㎡주택2동(기,슬라브)198㎡ 매매가 3억8천만원, 주변경관최상 (전원주택3~4동 신축적합)

【학원, 병원, 목욕탕 적합 건물(부지)매매】

- 연제동 근린상업지역 대지638㎡, 건물330㎡ 대7억(조정가, 용지3억) 투자적합

【마트매매】

- 광신구 1층마트 231㎡ 2층주택135㎡성업중 매매매5억4천(용지2억)

【전문식당매매】

- 2층신축건물 373㎡정어리전문점 최최합 현업중 일매출400만원 (주말600) 매매가16억(용지4억)

【고시원 매매】

- 용봉동 대지310㎡건물618㎡(65실) 월수입 1,200만원 용지3억7천, 매매가7억9천만원

【신축 무인텔 매매 및 임대】

- 대지117㎡건물1454㎡24실23개 시설최상 위치중음
- [고창 불한중막 목욕탕 신축건물 매매]
- 대지9900㎡건물595㎡ 매매가120억

【토지매매】

- 광신구 수완지구 자연녹지지역 신실도로8차선 부근 - 대지 15,000㎡ 매매가399억(물류센터 등 적합) - 전 5,140㎡ 매매가15억6천만원(물류센터 등 적합)

【축사매매】

- 장성군 남면 도로접 축사대지1937㎡건물1157㎡위치 최적, 최신시설완비 매매가2억7천만원

【부동산 구함】

- 상가건물,담양,장성 전원주택부지 등 부동산 구함

대표전화 010-3180-9211

수완지구 상가 불매 전문

학원, 병원, 한의원, 고급식당, 독서실, PC방, 노래방, 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 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대방 모이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대방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고시원, 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건축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컨설팅(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공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방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생충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신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몰(도시가스, 리모텔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례면 천정리 임야 1200평 진일로있음
- 관리지역(일부 토) 매매 평당3155천(조정가)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